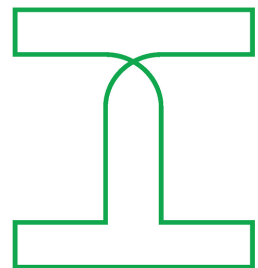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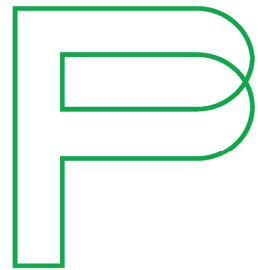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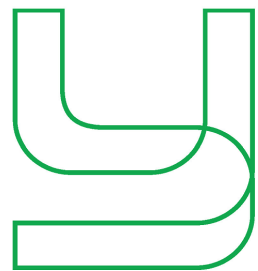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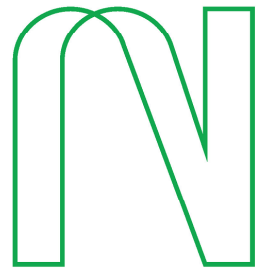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책임연구원 구정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책임연구원 :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교수)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 관련 학교환경과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환경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이들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중·고등학생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종속 변수인 청소년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둘째는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셋째,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으로 정하였다. 독립 변수인 인권 관련 학교환경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은 일상경험, 학교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일상경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학교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요인으로 밝혀진 인권교육 경험,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인구적 변수 등은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 22.0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나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는 낮은 편이었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으로는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가 인권 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세부 항목 대부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인권 친화적 측면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세부 항목 대부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과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검사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인권 침해적 측면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고,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이나 학생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등을 하는 경험은 피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인권의식,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인권교육, 인권 존중, 인권 보장, 일상적 인권경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인권 관련 학교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임.
-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인권 논의,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의 관련성을 고찰함.
-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을 분석하였음.
-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으로 설정하였음.
- 인권 관련 학교환경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은 일상경험(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급회의 운영 경험,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일상경험(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이 포함되었음.
-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을 분석하였음.

3. 연구결과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세부 항목 대부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과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서 교사나 동료 학생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존중감, 수업에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수법 등 다양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과 같이 논의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야 함.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의 인권과 학교환경	7
2.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	15
III. 연구 방법	21
1. 연구 대상과 조사 방법	23
2. 관련 변수와 측정 도구	24
3. 자료 분석 방법	32
IV. 연구 결과	35
1.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37
2. 청소년 인권 보장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43
3.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49
4.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55
V. 논의 및 결론	57
참고문헌	63

표 목차

〈표 Ⅲ-1-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적 특성	23
〈표 Ⅲ-2-1〉 연구 변수의 신뢰도	31
〈표 Ⅲ-3-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그 특징	33
〈표 Ⅳ-1-1〉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학교급별)	37
〈표 Ⅳ-1-2〉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학교급별)	39
〈표 Ⅳ-1-3〉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학교급별)	40
〈표 Ⅳ-2-1〉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44
〈표 Ⅳ-2-2〉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46
〈표 Ⅳ-2-3〉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48
〈표 Ⅳ-3-1〉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50
〈표 Ⅳ-3-2〉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	52
〈표 Ⅳ-3-3〉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54
〈표 Ⅳ-4-1〉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	56

제 I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류의 존엄성을 위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한지도 60여년이 지났다.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이후에도 다양한 인권 관련 협약을 통해 모든 인간이 인권을 누리도록 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협약들을 제시하면서 개별 국가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개별 국가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1991년에 공식적으로 비준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 노력을 할 것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발달권이나 보호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해왔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이후에도 학교생활과 관련한 청소년의 인권 논의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여전히 ‘인권은 교문을 넘지 못 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보장은 다른 사안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의 주장이나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의 논의, 학교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과 함께 학교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한 사건은 바로 교육청 단위에서 입법화한 학생인권조례(혹은 학교인권조례)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여러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었고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은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지만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청소년 인권보장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의견이 개선되면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는 호의적이지 않은 측면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현재적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목소리도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학교가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배우는 것이 권리’라는 세계인권선언 등의 조문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권을 알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의 조성이다. 이는 학습 내용으로서 인권을 강조하여, 인지적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을 이해하게 하더라도 학교환경 자체가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학교환경은 그 자체로서의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곳이어야 하며,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학교환경은 인권 친화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은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은 인권을 고려하는 학교 분위기, 학교 문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교수학습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인권 관련 학교 환경이 관련성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큰 지를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주는 세부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존에 이론적으로 강조되던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중요한 요인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5차년도까지 이루어진 분석 연구에서 학교환경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이룰 것이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인권과 학교환경
2.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인권과 학교환경

1) 청소년의 삶과 인권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다양한 연령으로 구분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에서는 19세를 포함하거나 미만이라는 등 연령 한계가 다양하다. 또한 심리학이나 사회학 논의에서 청소년에 관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10대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논의에서는 중·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 삶을 경험하는 시기의 학생 대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 시기로 설정하기에 중학생 연령의 대부분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경험한다. 고등학교 기간은 의무교육 시기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도 대다수가 학교생활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이들의 삶의 경험과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학업 등 학생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생활경험이 청소년들의 향후 사회적 삶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시기의 학교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학교생활 과정에서 청소년은 한 개인의 성장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삶의 가치를 학습하게 되기에, 이 시기에 배우는 다양한 가치는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사회는 중요하다고 설정한 가치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가르치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을 강조하는 인권이라는 가치 또한 학교생활 과정에서 배우면서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인권적 삶의 경험을 학교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지만, 이들이 인권과 관련한 경험과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편이며,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크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생활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양상을 살펴보면 인권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는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나 방임, 학교생활에서는 학교 내 구성원에 의한 학교폭력, 사회생활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당하는 무시 등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험보다,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험은 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회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문제 상황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처럼 그 자체가 범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이 인권 침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인권과 함께 부모나 교사의 권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행위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를 살펴볼 때에 그 행위가 양육이나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명백하게 인권 침해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밝혀, 가정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행하는 아동방임이나 체벌과 같은 학대 등의 문제 상황을 경험한다(길은배, 이미리, 2007; 이금옥, 2006; 주희중, 이명숙, 박병식, 이백철, 1998).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인데,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날 만큼(김녕, 2014 : 79), 학교생활 또한 청소년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명 왕따라고 하는 따돌림이나 욕설에 의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 학생간의 인권 침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연수, 김효정, 김희경, 2015 : 419). 가장 대표적인 학생간의 인권침해는 학교폭력 행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이 대표적이다(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3). 학교폭력이 학생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체벌 문제나 욕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정상우, 2013).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 내 인간관계에서만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제도의 집행이나 운영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받지 않고 관행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과정에서 표출되었다. 대표적으로 1995년에 일어난 야간자율학습 관련 문제제기와 소송, 2000년에 나타난 두발자율화 관련 서명운동, 2001년에 제기된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인권 침해 내용, 2004년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관련 소송 등이 있는데(강명숙, 2012; 강명숙, 2013; 배경내, 2012), 이러한 사안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아직도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교육 정책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지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에 따라 방법론적인 측면 혹은 기술론적 측면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 운영 방안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0교시 운영, 편법 보충수업, 전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강제’ 등의 경우가 있으며, 심화반 운영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경향도 여전히 남아있다(이발래, 2009 : 462-463). 제도적 측면의 인권 상황 이외에 학교가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정보의 노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 학생들의 학업 향상 촉진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 문제 등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은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 무관심, 개인의 권리를 다양하게 침해하는 엄격한 규정과 규제,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노출, 다양한 자유의 침해 등을 학교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연수, 김효정 외, 2015 : 415).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을 고려하면, 청소년은 학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일정 부분의 권리를 유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 논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선언과 협약 등에서는 일정 연령의 학생 청소년도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은 모든 인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안한 이유는 특별히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권을 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구정화, 2009 : 3).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별도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문서를 국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들이 침해받는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한 권리의 주체로 여기는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하였다(류은숙, 2009 : 278-280). 따라서,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는 대상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더 보호받음으로써 특별한 인권을 더 누려야할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권리 이외에 청소년들에게 부가된 권리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Freeman(2002/2005)은 ‘복지권, 보호권, 성인권, 부모에 대응하는 권리’로, Coles(1995)는 ‘천부권, 보호권, 의사표명권, 권능부여권’으로, Wald(Veermam 1992, p. 55에서 재인용)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성인에 의한 학대, 방임 등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국가 행위와 관련되어 성인과 동등한 헌법적 보호와 취급을 받을 권리, 부모의 통제나 지도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제시한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청소년의 권리는 주로 성인에 대응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 성인과 동일하게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 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이해주, 최윤진, 구정화, 2011).

둘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으로 인해 학생의 권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제시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법리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라는 곳이 갖는 공간적 특수성’이나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갖는 대상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따로 논의하고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다(이춘구, 2012; 조재현, 2012). 이에 반대하여 내놓은 의견이 바로 학생들도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즉, 학생들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고려하는 한 인간이며, 더불어 인간으로서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으므로(강명숙, 2013; 오동석, 2010),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학생들이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될 수 있었다.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혹은 학생 권리와 관련한 논의를 고려하면 청소년들도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면서도 성인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부가적으로 더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존중받는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고찰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인권 문제

학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면서, 또래집단과 선생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발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곳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삶을 배우는 공간이다(원미순, 박미현, 2015 : 244). 이에 따라 학교생활은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삶의 방식을 익히는데 영향을 주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협력 등을 통해 인간과 사회라는 삶의 맥락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 갈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경험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성적과 입학시험이다(김창민, 2013). 이는 우리의 교육환경이 갖는 특성으로서 경쟁적 학습 환경과 그 안에서 오롯이 학업을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 청소년의 삶을 드러내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학교생활의 방식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이기보다는 우리 교육의 제도적 및 문화적 특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적 및 문화적 특징은 수월성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이 핵심인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이 학생 청소년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된다(권순정, 2015 : 162).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가 학교 공간에서 학생이라는 지위에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논의도 제시되었는데, 크게 친권이양설과 특별권력관계설로 나누어볼 수 있다(구정화, 2014 : 3-5). 친권이양설은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가 가진 친권을 학교나 교사에게 이양했다는 것이다(표시열, 2008). 일반적으로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를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대행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교사를 비롯한 학교가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부모를 대신하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가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기, 199 : 183-184; 송요원, 2004 : 323). 이 점에서 친권대위설(the doctrine of in loco parentis;

in place of parent)이라고도 불린다.

또 다른 논의는 특별권력관계설인데, 이는 군대나 경찰처럼 학교 또한 행정을 위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행정 집행대상자들에게 포괄적인 권력을 통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다(오동석, 2010). 말 그대로 학교는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집단이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권력을 표출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 질서유지 등 학교 행정을 위해서 학생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은 특별한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름의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두 가지 이론에 의하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친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조건에 놓인 존재이며, 그에 따른 합리성의 결여와 보호와 후견의 필요성 때문에 일정한 권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대표적으로 미성숙과 합리성의 결여로 인해 청소년들은 상당한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제약받고, 부모와 교사의 보호를 따라야 하며, 특히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이라는 특수 지위에 따라 상당 부분의 권리를 제한받아야 한다(조기제, 2006 : 168).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후 청소년권리선언 등과 같이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친권이양설이나 특수권력관계설과 같은 기존의 이론보다, 청소년은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그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구정화, 2014). 이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학생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려되어 나타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면서, 광주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정순원, 2011 : 198). 학생인권조례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이들 학생 청소년이 갖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권리는 ‘평등권, 신체의 자유, 학습권과 휴식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생 자치권, 복지지원받을 권리, 적법 절차 보장과 권리 구제를 받을 권리’ 등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정순원, 2011; 조재현, 2012).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학교환경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통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인권 보장을 제도화 하려고 할지라도, 학교환경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 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3) 학교환경과 청소년의 인권

인권공동체로서의 학교란, 인간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나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식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공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체험하고 학습해나가는 학교 공동체를 의미한다(유병렬, 2012 : 56). 따라서 학교는 학습 내용,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생의 수업 지도,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적 삶을 고려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환경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학교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교사 자원과 같은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측면에서 학교 분위기나 학교 문화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삶이 수업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육과정 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구정화, 2004; 김창민, 2013).

그러나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을 논의할 때는 교육을 위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나 문화 등의 사회적 여건에 초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배움으로써 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삶의 전 영역에서 인권이 실현되길 바라는 교육이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 3-5). 이는 학생 청소년들이 인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인권 상황을 인권의 관점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참여와 실천을 통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박길자, 2008; 설규주, 2005).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유엔의 인권관련 선언이나 협약 등 다양한 문건에서도 강조된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비엔나 선언(1993년) 등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 인권보장의 한 요소임을 밝히면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권리임을 강조하였고, 이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인권교육 논의에서 강조되는 핵심 사안은 인권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유문무, 2013). 이를 위해 인권교육은 단순히 학습 내용으로서 인권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적인 방법과 관점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식, 학교 조직 문화 등에서도 인권적인 측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Lister(1991 : 249)는 이를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하며, 인권교육이 인권을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나 인권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교의 환경이나 문화가 인권 친화적인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권을 가르치는 교육환경도 인권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의 구성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된다. 우선 학교가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고, 수업이나 학교 운영 등에서 학생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구정화, 2010). 이를 더 확장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는 수업 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등의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종태, 조난심, 나병헌, 구정화, 송현정, 이은규, 2005).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진영중, 류은숙, 고은채, 배경내, 영원, 임은주, 서영표, 조효제, 2007). 학교의 운영과 수업,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차별 금지,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 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등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향후 학생인권조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김녕, 2014 : 86-87).

2.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

1) 청소년의 인권의식

전통적으로 한 사회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지를 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인권의식은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인권 관련 논의에서도 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어떤 인권이 보장받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즉, 초기의 인권 논의에서는 개인의 인권인식 보다는 사회의 제도적인 인권 보장 자체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의 인권인식은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구정화, 2016 : 5).

그러나 최근 논의(정진성, 구정우, 공석기, 유기웅, 2012; Woodiwiss, 2005)에서는 한 사회의 인권 논의가 단순히 사회 제도로서만 고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의 실제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인식하는 인권에 대한 인식도 인권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누리는 인권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사회의 인권 현황에 의해 구성되므로, 한 사회의 제도적 인권 수준 이외 구성원들이 자신과 관련하여 혹은 사회 전반적인 인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크게 인권인식과 인권의식이 혼재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구정화, 2016 : 5-7). 기존에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다룬 관련 연구(유성렬, 2013; 천정웅, 2014)에서도 인권의식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보장을 받는지 등을 묻는 질문 구성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이라고 규정하는 정도였다.

최근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권인식이나 인권의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인권인식은 ‘권리의 소유자인 개인이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에서의 인권이나 인권 상황에 대하여 갖는 인지’라고 정의된다(정진성 외, 2012 : 403; 구정화, 2016 : 5). 이와 관련하여 구정화(2016 : 5)는 기존 관련 연구 대부분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인권을 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지, 인권 보장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인권인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인식은 개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인권보장 정도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파악한다.

이와 달리 객관적인 측면의 인권에 대한 생각 혹은 사고를 고려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루어져왔는데, 이런 논의는 주로 인권의식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인식이 한 사회에서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인식 정도라는 느슨한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인권의식은 주로 교육적 측면과 연관되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인권에 대한 사고에 초점을 둔다. 이와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는 개념 정의는 한 개인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Rest의 주장과 연관하여 인권의식을 논의한다. Rest(1983)는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 상황에 대하여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인 인권감수성, 그 후에는 인권과 관련하여 정오 판단을 하는 인권판단력, 그 후에는 인권가치를 우선 적용하는 인권동기화 과정,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을 행하는 인권실천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김자영(2012 : 12)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을 수호하려는 태도’를 인권의식이라고 보았다. 인권의식은 단순히 인지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천과 관련한 측면도 강조하고, 세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인권인식과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나 인권감수성, 인권판단력, 인권동기화 과정, 인권실천력은 이론적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실제 인권 관련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인권감수성, 인권판단력, 인권실천력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인권의식을 개념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인권의식을 정의적 측면의 인권감수성과 인지적 측면에서의 인권판단력 요소를 주되게 고려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자신의 인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인권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논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의식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같이 개념화하여 인권인식과 가깝게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에 더해 ‘인권 및 인권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조윤정, 2006; 홍봉선, 아영아,

201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학교환경과 관련시켜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인권의식의 옹호과정과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를 대상으로 인권과 인권 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인권 관련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앞서 제시된 인권의식에 관한 여러 개념 논의를 종합하면서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하여 ‘청소년이 인권과 관련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여 인권보장 정도, 인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면서, 인권 친화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

2)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권이나 인권교육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박길자, 2008; 설규주, 2005; 이종태 외, 2005; Lister, 1991). 그러나 실제로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인권 학교환경 중에서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려는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인권 관련 학교환경과 청소년의 인권의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구 대상이 전국 표본이기 보다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의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이외에,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이나 학교폭력 등 인권 관련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난 관련 변수도 고찰해보았다.

첫째,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의식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권 관련한 학교환경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김영신(2010)은

인권교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인권 친화적 학급 문화가 조성된 학교의 학생들이 인권존중 경험을 더 많이 느끼며, 이 결과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인 행동 등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 김자영(2012)은 수도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환경이 나타나는 경우에 학생들의 인권판단력이나 인권감수성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김현경과 김신영(2015)이 경기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접적으로 인권의식을 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교환경이 인권 친화적인 측면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밝히고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의 세부 내용은 구성원간의 관계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차별 없는 대우, 평화적 문제 해결, 학교에서의 다양한 의사 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표현의 자유, 참여 기회의 보장, 자유로운 단체 구성 등이다(김현경, 김신영, 2015 : 35). 또한 원미순과 박미현(2015)은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 요인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학교환경을 ‘학교 전체 환경’, ‘학급 환경’, ‘교사 환경’으로 구분하여 세부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에 학교 전체 환경과 교사 환경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 환경과 학급 환경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환경의 세부적인 영역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권의식이나 태도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학교환경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를 주요한 변수로 고려한 연구가 많다. 전준현(2011)은 청소년의 인권 태도에 가정이나 가족의 영향보다는 학교에서의 교사나 친구 의한 지지가 인권 태도 형성에 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으로서 교사와의 관계나 친구관계가 인권의식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종효(2013)도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양상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학생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학교환경의 요인이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인권경험이 인권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구정화(2016)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으면 인권존중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선후배나 교사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면 인권존중 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로부터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김자영(2012)과 유성렬(2013)

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연수, 김효정과 김희경(2015)이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친구, 교사로부터 인권 침해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 부적응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중에서도 교사의 인권 침해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정 수업 방법이 학생들의 인권 관련 의식을 높여준다는 연구들(김원태, 천희완, 이민정, 공영아, 장대진, 2004; 김현경, 김신영, 2015; Starkey, 2006)도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학생들이 실제로 토의와 토론을 하거나, 체험과 사회참여 활동 등을 해보는 경험을 학습과정에서 하게 될 경우, 즉, 구체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의식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사실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생들의 인권의식에도 긍정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수업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이외에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와 관련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분석할 때 인권 관련 학교환경 이외의 부분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변수를 다룬 연구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학생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이다. 많은 연구(구정화, 2016; 김영로, 2008; 김영신, 2010; 류민석, 2001; 이승미, 2000; 이상희, 2007)들이 인권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갖추게 하는 등 인권의식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많은 연구에서 인권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보고되기에 통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김혜정(2002)의 연구나 이수연, 문용우(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하종민(2011)의 연구, 이중섭, 모상현(2012) 등의 연구를 고려해보면,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길은배와 이미리(2007), 박봉규(2011)와 이채식(2013)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변수를 독립변수인 인권 관련 학교환경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서의 인권 존중과 같은 긍정적 경험, 폭력이나 체벌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경험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의견표현의 자유, 학교규칙 등 학교의 사안에 대한 청소년참여 경험, 자유로운 청소년 활동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생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개인정보의 노출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억압당한 경험도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교육, 자아존중감, 성별 등의 측면도 인권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 III 장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조사 방법
2. 관련 변수와 측정 도구
3. 자료 분석 방법

제 III 장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 가운데 중·고등학생의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기본적으로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하면서 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을 통해 연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한 것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대상도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수		빈도(명)	비율(%)
학교급별	중학교	3,741	47.0
	고등학교	4,221	53.0
성별	남자	4,151	52.1
	여자	3,811	47.9
학업성적별	상	2,129	26.9
	중	3,305	41.7
	하	2,492	31.4
경제적수준별	상	3,677	46.4
	중	3,040	38.4
	하	1,206	15.2
지역규모별	대도시	3,132	39.3
	중소도시	3,892	48.9
	읍면지역	939	11.8
전체		7,962	100.0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학생이 전체의 47.0%, 고등학생이 53.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학생이 52.1%, 여자 학생이 47.9%이다. 학업성적별로는 스스로 ‘상’이라고 한 비율이 26.9%, ‘중’이라고 한 비율이 41.7%, ‘하’라고 한 비율이 31.4%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밝힌 자신의 가정의 경제 수준을 보면 ‘상’이라고 한 비율이 46.4%, ‘중’이라고 한 비율이 38.4%, ‘하’라고 한 비율이 15.2%로 나타나, 학생들의 응답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더 많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의 해석에서는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가 39.3%,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가 48.9%, 읍면지역의 경우가 11.8%로 나타났다.

2. 관련 변수와 측정 도구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으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비추어 세 가지 영역의 7가지 항목을 세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영역은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으로 정하였다. 다만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은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역의 값을 갖는다.

(1)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시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4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셋째,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묻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중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2)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

보장받아야 할 인권 내용에 대한 지지는 여러 문서 등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으로 제시된 것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지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함을 인정하는지를 묻은 것으로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4점 척도를 제시하였고, 결과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표명권을 갖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것으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4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지지 정도를 묻은 것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4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3)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은 청소년 스스로 행한 차별행동 가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10가지 항목을 주어 가해경험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까?”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구체적인 항목 10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얼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독립 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다. 이에 따라 문항은 주로 연구 대상인 중·고등학생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에서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서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은 일상경험, 학교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일상경험이다.

(1)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이 긍정적 경험을 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위 영역으로 구별하였다.

우선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3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다음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다음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학교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과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을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과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은 각각 1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최근 1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다음의 2가지 항목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과 관련하여 피해당한 경험 빈도를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응답은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선후배, 친구에게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7가지 항목을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다음의 7가지 항목인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따돌림을 당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협박을 당함’,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강제적인 심부름’을 당한 피해 빈도를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학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은 일상경험

학교생활이나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은 일상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이고, 둘째는 ‘학급회의 운영 여부’이며, 셋째는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이고, 넷째는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다.

우선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은 1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라고 제시한 후,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급회의 운영 여부’도 1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라고 제시한 후, 이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은 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다음의 4가지 항목인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역코딩)’,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 한다’,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준다’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은 2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다음의 2가지 항목인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학교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일상경험

학교생활이나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일상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과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을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은 3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은 3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라고 지시문을 제시한 후,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학교는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에 대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통제 변수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된 ‘인권교육 경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 그리고 ‘성별, 학교별, 학업성적별, 가정형편별, 지역규모별’과 인구학적 특징 등 7가지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1) 인권교육 경험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받은 인권교육을 횟수가 학생의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여 설정된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문항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한정하지 않아서 이를 학교환경과 관련한 영역으로 보지 않고 통제 변수로 따로 설정하였다. 문항은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 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응답은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받은 적 없음’ 중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다.

(2)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4가지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다.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자신에 해당되는 것에 응답해주시시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역코딩)/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4가지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답할 수 있도록 4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행복감은 자신이 현재 느끼는 행복 정도를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로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한 질문은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1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의 4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사회인구적 특징

청소년의 사회인구적 특징은 성별, 학교별, 학업성적별, 가정형편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성별은 ‘남자, 여자’를 분류한 것이다. 둘째, 학교별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파악한 것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만 분류하였다. 셋째, 학업성적별은 응답자 스스로 주관적인 자기 평가에 의해 판단하게 한 것으로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서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중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넷째, 가정형편별은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매우 못 산다에 1점, ... 보통에 4점, ... 매우 잘 산다에 7점’을 주어 주관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4) 연구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조사를 실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 조사 과정 중에 이루어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질문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성 확보를 위한 다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신뢰도의 경우는 따로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중에서 여러 문항을 사용한 경우에는 크론바하알파 값을 통해 문항 간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연구 변수의 신뢰도

연구 변수		신뢰도	문항수
독립 변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740	3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869	4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772	7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789	4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560	2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	.734	3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617	3

연구 변수		신뢰도	문항수
종속 변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782	3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566	2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840	4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	.831	10

독립 변수의 경우,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의 경우는 .6 이상의 신뢰도가 나와서 의식을 묻는 정의적 문항으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의 경우는 .560으로 조금 낮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 환경으로서 중요한 영역이고, 문항이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종속 변수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 등의 경우에는 모두 .7 이상의 신뢰도가 나와서 정의적 문항으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의 경우는 .566의 낮은 신뢰도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청소년의 인권인식에서 중요한 종속 변수로 보았기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회귀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인식,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학교급별 집단 간 평균 등을 구하였고, 변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방법(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종속 변수의 경우에,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나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점 척도여서 연속 변수로 보았으며,

‘비인권적 차별경험 가해경험’의 경우는 횡수를 제시한 것이어서 완전히 연속변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0개 항목의 평균을 사용하는 등 연속변수로 취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일하게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는 단계투입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VIF 값을 구하였으며, 이 값을 통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든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Statistics(ver. 22)를 활용하였다.

2)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의 재구성

이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의 경우, 기존 조사 항목의 문항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귀분석에 사용한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변수와 척도의 특성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III-3-1>과 같다.

표 III-3-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그 특징

영역	변수 영역	변수의 하위 영역	변수의 특징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 여부, 교육 경험 없음=0, 1=1, 2=2,, 5회 이상=5
	행복감		자신의 행복 정도에 대한 1문항의 응답값, 4점 척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4문항의 응답값 평균, 4점 척도
	사회인구적 배경	성별	성별에 대한 응답값, 남자=0, 여자=1, 더미화
		학교급별	재학하는 학교급에 대한 응답값, 중학교=0, 고등학교=1, 더미화
		학업성적별	학업성적에 대한 응답값, 1=매우 못하는 수준..... 5=매우 잘하는 수준, 5점 척도
		가정형편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값, 1=매우 낮은 편,, 7= 매우 높은 편 7점 척도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학교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것과 관련한 3문항의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4문항의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영역	변수 영역	변수의 하위 영역	변수의 특징
	교사로부터 인권 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교사로부터의 체벌 빈도에 대한 학생의 응답값, 한 번도 없음=0..... 1주일에 3회 이상=4
		교사로부터 모욕적 언어 경험	교사로부터 모욕적 말을 들은 빈도 응답값, 한 번도 없음=0..... 1주일에 3회 이상=4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선후배, 친구로부터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빈도 응답값, 한 번도 없음=0..... 1주일에 3회 이상=4
	학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은 일상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교의 청소년 활동 지지에 대한 응답값, 4점 척도
		학급회의 운영 경험	학급회의 운영 여부와 관련한 응답값, 운영되지 않는다=0, 운영 된다=1, 더미화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학교의 간섭 없이 운영되는지와 관련한 4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학교규칙의 개정과 운영에서 학생에게 공지하는 지와 관련한 2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학교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일상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검사를 경험과 관련한 3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학교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험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3문항의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종속 변수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와 관련한 3문항의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정도와 관련한 1문항의 응답값, 4점 척도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	학교에서 학생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와 관련한 1문항의 응답값, 4점 척도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지와 관련한 1문항의 응답값, 4점 척도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지지와 관련한 2문항의 응답평균값, 4점 척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기본적 인권이 강조되는 관련 상황에 대한 지지와 관련한 4문항의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		청소년 자신의 타인에 대한 차별 가해행동 경험을 묻는 10개 문항의 빈도 응답 평균값, 한 번도 없음=0..... 1주일에 3회 이상=4

제 IV 장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2. 청소년 인권보장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3.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4.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제 IV 장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1)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종속 변수로 설정된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과 관련하여 인권보장 정도를 인식하는 것은 그 사회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게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는 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단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여 각 영역별에 대하여 학교급별 차이를 기술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으며,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학교급별)

변수	집단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중학교	3,720	2.95	.69
	고등학교	4,212	2.94	.64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	중학교	3,733	2.49	.87
	고등학교	4,215	2.18	.90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	중학교	3,735	3.13	.65
	고등학교	4,219	2.97	.66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의 경우, 중학생의 평균값은 2.95, 고등학생의 평균값은 2.94로 나타나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인식에서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의 경우, 중학생의 평균값은

2.49, 고등학생의 평균값은 2.18로 나타나서 중학생의 인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에는 중학생의 평균값은 3.13, 고등학생의 평균값은 2.97로 중학생이 더 높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식 결과를 비교해보면,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라는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것과 관련한 인식의 항목에 대하여 중학생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3.13),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2.9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2.49)’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도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2.97),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2.94),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2.18)’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나머지 두 항목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의 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응답값이 중앙값인 2.5점보다 낮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

일반적으로 인권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보장된 권리를 갖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으로서 강조되는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와 동의를 보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인지적 판단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여 각 영역별에 대하여 학교급별 기본적인 통계를 기술하려고 하였으며, 세부 결과는 다음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학교급별)

변수	집단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중학교	3,735	3.01	.78
	고등학교	4,217	3.06	.75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중학교	3,729	2.98	.61
	고등학교	4,216	3.02	.56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지	중학교	3,723	3.45	.57
	고등학교	4,217	3.48	.52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의 경우, 중학생의 평균값은 3.01, 고등학생의 평균값은 3.06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지지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의 경우, 중학생의 평균값은 2.98, 고등학생의 평균값은 3.02로 나타나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지지 정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서 중학생의 평균값은 3.45, 고등학생의 평균값은 3.48로 나타나서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다. 즉,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지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중학생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지(3.45),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3.01),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2.98)’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지(3.48),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3.06)>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3.02)’ 순으로 나타나서 중학생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달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권 관련 상황과 관련한 지지의 세부 항목에는 청소년 자신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이나 참여권을 갖는 것 보다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비인권인 차별행동 가해경험 정도

학교의 인권 관련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한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의 빈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학교급별 단순 빈도를 통해 학교급 차이를 기술하려고 하였으며, 세부 결과는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표 IV-1-3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학교급별)

항목	집단	사례수 (명)	경험 빈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2	77.1	16.2	4.7	1.5	0.5
	고등학교	4,213	77.5	16.9	4.1	0.9	0.6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3	75.5	14.7	6.6	2.2	1.0
	고등학교	4,217	71.9	17.4	7.3	2.4	1.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2	77.3	15.0	5.0	2.1	0.7
	고등학교	4,212	76.9	16.0	5.2	1.3	0.6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1	95.8	2.6	1.0	0.4	0.2
	고등학교	4,216	96.1	2.4	0.9	0.4	0.3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2	96.0	2.5	0.9	0.4	0.3
	고등학교	4,213	93.4	3.9	1.3	0.8	0.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28	76.7	14.5	5.7	2.1	1.0
	고등학교	4,209	74.8	16.1	5.6	1.9	1.5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27	97.2	1.6	0.9	0.1	0.1
	고등학교	4,215	95.4	3.0	1.1	0.3	0.2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고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2	96.4	2.0	0.9	0.4	0.2
	고등학교	4,217	97.6	1.4	0.5	0.4	0.2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2	90.4	6.9	1.8	0.5	0.3
	고등학교	4,216	92.1	5.6	1.4	0.6	0.4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중학교	3,733	96.8	1.9	0.9	0.2	0.2
	고등학교	4,215	98.0	1.0	0.5	0.2	0.2

청소년의 차별행동 가해경험 중에서 우선,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77.1%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77.5%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그 빈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부를 못하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75.5%가, 고등학생의 경우는 71.9%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보면, 그 빈도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77.3%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76.9%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그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95.8%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6.1%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그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다.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96.0%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3.4%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가 차별 경험에 조금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76.7%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74.8%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그 빈도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97.2%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5.4%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96.4%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7.6%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90.4%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2.1%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는 중학생,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은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96.8%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98.0%가 ‘한 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경험 빈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0개의 차별 관련 가해행동 경험 항목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가해 정도는 3-25% 정도로 나타났으며, ‘공부, 외모나 신체조건, 성별, 연령’이라는 4 가지 조건에서 차별 가해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고등학생의 경우도 중학생과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청소년 인권 보장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1)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요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IV-2-1>에 제시하였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149$)’, ‘자아존중감($\beta=.143$)’, ‘행복감($\beta=.102$)’,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088$)’,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083$)’,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beta=.082$)’, ‘학교급별($\beta=.076$)’, ‘성별($\beta=.057$)’,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beta=.037$)’,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beta=-.033$)’, ‘인권교육 경험($\beta=.026$)’, ‘가정의 경제수준별($\beta=.023$)’,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beta=-.022$)’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에 미친 이들 13개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은 18.4%($F=130.635$, $p=.000$) 정도이다.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지 경험이 많을수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적을수록, 인권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이 적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의 전반적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학교규칙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 측면의 학교환경은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과 같은 인권 침해적인 측면의 학교 환경은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인권 친화적인 경험은 제공하고 인권 침해적 경험은 줄이는 것이 청소년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의 인식을 높여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표 IV-2-1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B	β	t	p
상수			.721		8.679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10	.026	2.430	.015
	자아존중감		.235	.143	12.555	.000
	행복감		.103	.102	8.461	.000
	성별(여자)		.075	.057	5.370	.000
	학교급별(고등학교)		.099	.076	6.917	.000
	학업성적별			-.016	-1.472	
	가정의 경제수준별		-.021	-.023	-2.138	.033
독립 변수	학교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179	.149	10.969	.000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094	.088	6.362	.000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18	-.022	-1.983	.047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02	-.140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089	-.033	-3.076	.002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65	.082	7.442	.000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03	-.286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39	.037	3.498	.000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083	.083	7.128	.00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03	-.286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06	-.545	
	$R / \triangle R^2$			.186 / .184		
$F(p)$			130.635 (.000)			

2)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2-2>와 같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176$)’,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129$)’, ‘학교급별($\beta=-.100$)’, ‘행복감($\beta=.079$)’, ‘학업성적별($\beta=.067$)’,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beta=-.035$)’, ‘인권교육 경험($\beta=.032$)’,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beta=-.029$)’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이들 8개의 변수가 갖는 설명력은 122%($F=116.800$, $p=.000$) 정도이다.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이 적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인식이 더 높을 것이다.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과 같은 4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측면의 학교환경은 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한 공개 검사 경험’과 같은 인권 침해적인 학교환경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참여권을 보장받는지에 대한 인식에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인권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인권 침해적인 경험은 줄이는 것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표 IV-2-2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i>B</i>	β	<i>t</i>	<i>p</i>
상수			.720		8.379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17	.032	2.868	.004
	자아존중감			-.002	-.160	.873
	행복감		.109	.079	6.713	.000
	성별(여자)			.009	.810	.418
	학교급별(고등학교)		-.179	-.100	-8.818	.000
	학업성적별		.078	.067	6.090	.000
	가정의 경제수준별			.006	.544	.586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018	1.291	.197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258	.176	13.711	.000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07	-.509	.611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34	-.035	-3.043	.002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009	-.835	.404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11	.953	.340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00	-.026	.979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15	1.393	.164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175	.129	10.870	.00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29	-.029	-2.642	.008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09	.761	.447
	$R / \Delta R^2$			.123 / .122		
$F(p)$			116.800 (.000)			

3)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 인식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266$)’,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145$)’,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128$)’,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beta=.106$)’, ‘행복감($\beta=.092$)’,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beta=.071$)’,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beta=-.069$)’,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beta=.064$)’, ‘자아존중감($\beta=.062$)’,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beta=-.033$)’,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beta=.027$)’, ‘성별($\beta=-.027$)’, ‘학업성적별($\beta=-.02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 인식에 대하여 이들 13개의 변수가 갖는 설명력은 38.7%($F=337.717, p=.000$) 정도이다.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교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적을수록,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이 적을수록,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적을수록,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이 적을수록,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의 인권 존중받는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할 것이다.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과 같은 9개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측면의 학교환경은 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생으로

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과 같은 인권 침해적인 학교환경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3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받는 정도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B	β	t	p
상수			1.092		14,055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14	1,470	.142
	자아존중감		.101	.062	6,241	.000
	행복감		.093	.092	8,948	.000
	성별(여자)		-.035	-.027	-2,778	.005
	학교별(고등학교)			.011	1,186	.236
	학업성적별		-.017	-.020	-2,187	.029
	가정의 경제수준별			-.010	-1,034	.301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320	.266	22,070	.000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155	.145	12,179	.000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05	-.485	.628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76	-.106	-10,502	.000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181	-.069	-7,348	.000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50	.064	6,633	.000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12	1,319	.187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29	.027	2,984	.003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127	.128	12,592	.00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24	-.033	-3,330	.001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72	-.071	-7,445	.000
	$R / \Delta R^2$			.388 / .387		
$F(p)$			337.717 (.000)			

3.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1)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지지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3-1>과 같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141$)’, ‘자아존중감($\beta=.079$)’,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050$)’,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beta=.041$)’,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beta=-.041$)’,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beta=-.032$)’,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031$)’, ‘성별($\beta=.027$)’,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beta=.0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이들 9개의 변수가 갖는 설명력은 2.9%($F=26.063, p=.000$)로 낮게 나타나,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각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긍정인 평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교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을 적게 했을수록,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것이다.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과 같은 7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 영향력이 일정한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학생 개인들이 학교에서의 다양한 인권 관련 경험에 따라 의식이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IV-3-1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i>B</i>	β	<i>t</i>	<i>p</i>
상수			3.233		32.679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08	.671	.502
	자아존중감		.151	.079	6.646	.000
	행복감			-.010	-.776	.436
	성별(여자)		.042	.027	2.263	.024
	학교별(고등학교)			.012	.981	.327
	학업성적별			-.023	-1.950	.051
	가정의 경제수준별			.009	.780	.436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044	.031	2.089	.037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175	-.141	-9.702	.000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14	1.005	.315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34	.041	3.222	.001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097	-.032	-2.705	.007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23	1.892	.058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00	-.001	.999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10	.843	.399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058	-.050	-4.003	.00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21	.025	2.012	.044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48	-.041	-3.372	.001
$R / \triangle R^2$			.030 / .029			
$F(p)$			26.063 (.000)			

2)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지지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3-2>와 같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135$)’,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beta=.115$)’, ‘성별($\beta=.108$)’, ‘자아존중감($\beta=.090$)’, ‘학교성적별($\beta=-.085$)’, ‘학교급별($\beta=.075$)’,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059$)’,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053$)’,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beta=.042$)’, ‘학급회의 운영 경험($\beta=-.03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이들 9개의 변수가 갖는 설명력은 11.1%($F=78.624$, $p=.000$) 정도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규칙과 관련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이 많을수록, 학급회의 운영 경험이 적을수록 청소년이 의사표현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것이다.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교규칙과 관련한 참여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과 같은 5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학교환경 관련 변수는 ‘학급회의 운영 경험’만을 제외하고는 인권 침해적이든지 인권 친화적이든지 상관없이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급회의 운영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여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항목과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 경험이든지 인권 친화적 경험에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참여 기회를 가져 보았거나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참여권을 청소년이 갖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3-2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B	β	t	p
상수			1,912		26.879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15	1.358	.174
	자아존중감		.131	.090	7.541	.000
	행복감		-.023	-.026	-2.047	.041
	성별(여자)		.125	.108	9.396	.000
	학교별(고등학교)		.087	.075	6.576	.000
	학업성적별		-.064	-.085	-7.605	.000
	가정의 경제수준별			-.009	-.790	.430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056	.053	3.772	.000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056	.059	4.089	.000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16	-1.375	.169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07	-.611	.541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015	-1.355	.175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80	.115	9.955	.000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44	-.037	-3.368	.001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10	.888	.375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119	.135	11.068	.00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27	.042	3.658	.000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14	-.196	.232
	R / ΔR ²			.112 / .111		
F(p)			78.624 (.000)			

3)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3-3>과 같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beta=.154$)’, ‘자아존중감($\beta=.124$)’,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095$)’,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095$)’, ‘학교급별($\beta=.067$)’,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beta=.079$)’,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beta=.069$)’, ‘학업성적별($\beta=-.066$)’, ‘학교에서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beta=-.062$)’,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beta=.050$)’, ‘인권교육 경험($\beta=.049$)’, ‘가정형편별($\beta=.024$)’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에서 이들 12개의 변수가 갖는 설명력은 11.9%($F=85.176, p=.000$) 정도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청소년 활동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지지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의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것이다.

이들 변수 중에서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교에서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과 같은 6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환경 관련 변수 중에서 ‘학교에서 개인 정보 노출 경험’만을 제외하고는 인권 침해적이든지 인권 친화적이든지 상관없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을 지지하는 데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3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i>B</i>	β	<i>t</i>	<i>p</i>
상수			2,198		32.811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16	.049	4,367	.000
	자아존중감		.167	.124	10,894	.000
	행복감			-.015	-1,198	.231
	성별(여자)		.165	.154	13,419	.000
	학교별(고등학교)		.072	.067	5,903	.000
	학업성적별		-.047	-.066	-5,875	.000
	가정형편별		.018	.024	2,151	.031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094	.095	7,660	.000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020	-1,399	.162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17	-1,451	.147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10	.870	.384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010	.913	.551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51	.079	6,925	.000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07	.596	.551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60	.069	6,289	.000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077	.095	7,926	.000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29	.050	4,234	.000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52	-.062	-5,439	.000
$R / \triangle R^2$			.121 / .119			
$F(p)$			85,176 (.000)			

4.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 중에서 인권 행동 측면으로 파악한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 중에서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에서 β 값이 높게 나타난 항목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beta=.183$)’,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beta=.082$)’, ‘행복감($\beta=-.076$)’,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beta=-.066$)’, ‘성별($\beta=-.057$)’,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beta=.056$)’,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beta=-.053$)’,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beta=.047$)’,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beta=.045$)’,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beta=-.034$)’, ‘학교급별($\beta=-.034$)’ 순으로 나타났다. ‘비인권적인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대한 이들 11개의 변수가 갖는 설명력은 10.9%($F=77.063, p=.000$) 정도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정적인 영향력과 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낮을수록,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적을수록,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규칙과 관련한 참여 경험이 적을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비인권적인 차별행동을 가해한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만을 고려하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학교규칙과 관련한 참여 경험’과 같은 8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다른 분석 결과와 달리, 학교환경 관련 변수 중에서 인권 침해적 경험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은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 경험은 차별행동 가해경험에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

변수			B	β	t	p
상수			1.156		26.927	.000
통제 변수	인권교육 경험			.007	.633	.527
	자아존중감			-.009	-.778	.437
	행복감		-.040	-.076	-6.433	.000
	성별(여자)		-.039	-.057	-4.901	.000
	학교별(고등학교)		-.018	-.034	-2.871	.004
	학업성적별			-.004	-.332	.740
	가정형편별			-.009	-.839	.402
독립 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033	-.053	-4.030	.000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020	-1.417	.157
	교사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	.024	.056	4.174	.000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	.018	.047	3.395	.001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253	.183	16.098	.000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받은 일상 경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008	-.717	.473
		학급회의 운영 여부(있음)		-.007	-.667	.505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경험	-.036	-.066	-5.950	.000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018	-.034	-2.871	.004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일상 경험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 검사 경험	.017	.045	3.815	.000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	.043	.082	7.048	.000
	R / ΔR ²			.111 / .109		
F(p)			77.063 (.000)			

제 V 장



논의 및 결론

제 V 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 관련성을 있음을 파악하고 세부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학교생활과 청소년의 인권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 관련 학교환경의 세부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으로 구분한 후, 인권 관련 학교환경의 세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에서 중·고등학생의 응답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ver. 22)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의식 중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 표명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의 현실에 대한 평가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낮아지고, 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인권 보장의 필요성은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인식은 학교급이 증가하면서 능동적인 인권의식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정화(2014)가 광주광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 이후 학생들의 인권 보장 등과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와 인권 보장을 받는 것에 대한 지지 표명의 하위 영역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의 응답 결과값은 중앙값인 2.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양한 권리목록보다 더 강조하는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4가지 중 하나가 청소년 참여의 원칙이라는 점(류은숙, 1997)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참여의 원칙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하여 직접 의견을 내는 것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참여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의 3가지 하위 영역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정도’,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 모두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인권 관련 학교환경 요인으로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과의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경험보다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이 학생의 인권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정도의 하위 영역인 ‘학교에서 청소년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 인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권 관련 학교환경 11가지 중에서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과 ‘학급회의 운영여부’만을 제외한 9개 변수 모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의 설명력이 38.7%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의 인권 존중이나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인식에 학교환경이 매우 큰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9개의 변수 중에서 인권 친화적 경험은 인권의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인권 침해적 경험은 인권의식에 부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점에서 구정화(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학교환경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다룬 김자영(2012)의 연구, 김현경과 김신영(2015)의 연구와 김영신과 박가나(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섯째,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지표명의 경우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인권 관련 학교환경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른 분석 결과와 달리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청소년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서 그들의 의사결정

을 부모나 교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항목과 달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항목이 역코딩 되어 있어서 응답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응답이 가져온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이 참여권을 갖는 것과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는 것에 대한 지지표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과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자치 활동이 인권의식을 높여준다는 정건희(2009)의 연구 결과나 학교규칙 운영 참여를 고려하는 교사의 지도 방식이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법 신뢰감을 높여준다는 강은영(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학교규칙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비인권적 차별행동 가해경험에도 11개의 학교환경 중 8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나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경험이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학교 내에서 차별 등의 비인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염영미(2011)의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와 피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교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은 학교환경을 경험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차별을 가할 행동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난 결과는, 학교에서 교사 등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경우에 학생들은 학생들이 가진 차별의 조건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차별 행동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부분도 향후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인권 관련 학교환경 이외 통제 변수로 제시된 인권교육 경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현실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빈도라는 측면에서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분석 결과만으로 인권교육 자체보다 인권 관련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더 영향력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영향력이 작다는 점에서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방법과 방향을 파악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같은 인권 친화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세부 항목 대부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 부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관련 학교환경은 '교사로부터 욕설 경험'과 '학교에서 사생활 관련 공개검사 경험'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교육방법, 학교규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인권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이 더 중요하는 점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나 인간관계에서 학생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학교 운영 방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수업 운영에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학생 참여식 수업을 운영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부터 시작하여, 학교 전체의 운영 과정에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가 학교규칙을 운영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참여한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규칙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이의 적용 등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실제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법정 등의 청소년 참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인권친화적인 경험을 더 권장하고, 인권침해적인 경험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인권친화적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인간관계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거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활동과 학교 운영에도 참여 경험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명숙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5(2), 1-15.
- 강명숙 (2013). 학생인권보장, 어떻게 한 단계 높일 것인가. **교육비평**, 31, 134-153.
- 강은영 (2016). **사회적 자본으로서 규범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생활지도 태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정화 (2004). 아동의 인권개념 형성에 비추어본 초등 사회과 인권 내용 적합성. **사회과교육**, 43(2), 65-84.
- 구정화 (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8(1), 1-12.
- 구정화 (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사회과교육**, 49(3), 1-16.
- 구정화 (2014).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1), 1-26.
- 구정화 (2016). 일상의 인권경험이 초등학교 학생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8(3), 1-25.
-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순정 (2015).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경험: 서울 S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18(3), 161-199.
- 길은배, 이미리 (200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기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차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4), 3-10.
- 김 녕 (2014).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풀어가기 - 인권적 시각에서의 고찰. **생명연구**, 31, 75-117.
- 김성기 (1994).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교육법학연구**, 6(1), 159-195.
- 김영로 (2008). **중학교 인권교육의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청소년의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김영신, 박가나 (2014).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 교육연구**, 21(3), 85-100.
- 김원태, 천희완, 이민정, 공영아, 장대진 (2004). **아름다운 사회참여-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 안내서**. 서울: 돌베개.
- 김자영 (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민 (2013). **학교 학습환경 평가목록표 개발: 고등학교 학습 환경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 김신영 (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 연구**, 47(2), 29-52.
- 김혜정 (200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민석 (2001). **인권교육이 도덕성 발달수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은숙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류은숙 (2009). **인권을 외치다**. 서울: 푸른숲.
- 박길자 (2008). 사회과 인권 내용요소의 통합적 구성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5(1), 1-24.
- 박봉규 (2011). 인권교육의 방향 탐색-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22(3), 91-126.
- 박종효 (2013). 학교환경과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례 탐색. **열린교육연구**, 21(1), 101-128.
- 배경내 (2012). 학생 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 인권보장 입법의 중요성. **서강법률논총**, 1(2), 87-112.
- 설규주 (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44(1), 27-56.
- 송요원 (2004).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체벌 - 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1, 313-331.
- 염영미 (2011). 학교폭력가해 청소년과 학교폭력가해피해 청소년의 특성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17-136.
- 오동석 (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125-144.

- 원미순, 박미현 (2015). 학교환경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고등학생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7(1), 239-260.
- 유문무 (2013). 학교폭력과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 Holism을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7(3), 105-125.
- 유병렬 (2012).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 239-264.
- 유성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3-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금옥 (2006).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학연구**, 12(5), 243-272.
- 이발래 (2009). 학생인권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43(3), 451-471.
- 이상희 (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연,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1), 65-89.
- 이연수, 김효정, 김희경 (2015). 교내 인권침해와 학교부적응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2), 413-442.
- 이종태, 조난심, 나병현, 구정화, 송현정, 이은규 (2005).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중섭, 모상현 (2012).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281-308.
- 이채식 (2013). 대학생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2), 5-21.
- 이춘구 (2012).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정책적 고찰. **전북대학교법학연구**, 35, 129-162.
- 이해주, 최윤진, 구정화 (2011). **청소년 인권과 참여**.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전준현 (2011). **사회적 지지와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건희 (2009). 청소년 자치활동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2(3), 82-106.
- 정상우 (2013).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47-169.
- 정순원 (201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교육법연구**, 23(2), 193-212.

- 정진성, 구정우, 공석기, 유기웅 (2012). 한국인의 인권인식과 태도, 2005~2011. **사회와 이론**, 24, 401-445.
- 조기제 (2006). 아동인권과 학교폭력. **초등도덕교육**, 20, 163-189.
- 조운정 (2006). **고등학생들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경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현 (2012).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법과 정책**, 18(2), 575-605.
- 주희중, 이명숙, 박병식, 이백철 (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진영중, 류은숙, 고은채, 배경내, 영원, 임은주, 서영표, 조효제 (2007).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천정웅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연구 보고 14-R14-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2012년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주요내용**. 서울: (재)푸른나무재단.
- 표시열 (2008).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체벌·징계절차·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자료집: 한일 학교 인권 현황과 인권교육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25-43.
- 하종민 (2011). **교사의 인권존중 정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 아영아 (2012). 인권감수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 복지**, 23, 307-335.
- Coles, B. (1995). *Youth and social policy*. London: UCL Press.
- Rest, J. R. (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 M. Markma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II, cognitive development, (4th edition)*(pp. 556-629). New York: John Wiley.
- Freeman, M. (2005). **인권, 이론과 실천** (김철효 역). 서울: 아르케. (원서출판 2002)
- Lister, I. (1991).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in H., Starkey(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pp. 245-255). London: Cassel.
- Starkey, H. (2006). "HRE in Europ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자료집: 유럽·미국의 인권 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1-32.
- Veerman, P. E. (1992).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hanging image of childhood*.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Woodiwiss, A. (2005).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environments related human rights experienc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it was first analyzed factor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Then, it was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environments related human rights experie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ression models show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in school, the positive assessment of the purpose of education in school, and the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school ru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Second, protective factors of the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on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were the positive assessment of the purpose of education in school and the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school rules, but risk factors of the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on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were the abuse from teachers and disclosure of their private life in school.

Key Words : human rights perception,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environments,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related experience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최용환·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김한별·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이윤주·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성윤숙·유성렬·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유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자·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자·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학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O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 쇄 2016년 12월 24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19-6 94330

979-11-5654-099-1 (세트)



연구보고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